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and Coping Behavior in Urban and Rural Areas

Jang, Young Ae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and coping behavior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subject included 286 children selected from 4 elementary schools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instruments included the children's stress index and coping behavior questionnaire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tatistics used from this data were t-test, one-way ANOVA(Duncan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s stress in school attainment domain, teacher-school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and surroundings domain. And urban and rural children was different in active, passive/avoidant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 The stress of urban's children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grade and school attainment variables, and the rural children's stress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gender variable. The coping behavior of urban's children was influenced by the gender, grade and school attainment variables, and also the rural children's cop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the above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children's stress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 were relative positive high correlation in urban areas, and children's stress and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were positive high correlation in rural areas. It was also found that school attainment, aggressive coping behavior and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urban children's stress, and gender,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rural children's stress.

key words: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 urban and rural areas, elementary school children

I. 서론

인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며 출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아동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신체적, 심리적변화 등으로 아동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동의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에서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김주연·김정순 1999; 백경애 1997).

특히 성장기 아동들은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접촉이나 또래들의 인정에 민감해지고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학업 등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스트레스의 요인이 가정외의 사회적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학업부진, 우울, 불안감, 학교생활 부적응, 공격성, 문제 행동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박현희(1997)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폭력, 자살, 약물 복용의 사례로 연결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의 스트레스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편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와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개인의 영향력이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 지는 것 같다고 보고하면서 스트레스 경험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개인의 사회,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동의 스트

레스 관련 연구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확대될 필요성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민하영·유안진 1999). 김영교(1995)도 스트레스 자체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개 변인이 되어 개인의 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여,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비교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통제 할 수 없거나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가를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성인에게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특성을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조사 분석 하는 일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동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불매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주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김영태 1997; 이종순 1999; 최애숙 1998; 우희정 1997; 이희진 1990)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임미향 1992; 김주연·김정순 1999)도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축적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업성적은 아동에게 관련된 중요변인이고 아동의 일상생활 및 부모,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스트레스에도 관계되는 중요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관련 변인으로 학년, 성별과 학업성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은 여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여러 환경변인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몇몇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장영애 1997; 박정희·장영애 2003).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는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사용하는 대처방식도 다를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와 같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는 못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보고, 이들이 아동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이해하고 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지도방안을 모색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에서는 아동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개념과 아동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동의 스트레스란 아동에게 내적 혹은 외적 요구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각에서 유발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측면에서의 갈등, 긴장, 압박 등을 갖게 되는 반응을 말한다(한미현 1996).

아동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성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 주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인보다 더욱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Pilkington등(1997)은 아동들이 겪는 가장 흔한 스트레스원은 부모, 선생님, 동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유발되며, 학생들의 10~15%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난, 가족문제, 학업적 실패의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주요한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속에서 학교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근본이 되고 있다. 김주연, 김정순(1999)은 엘리트 문화 지향의 학교 교육이 개성발달을 어렵게 하고 좌절된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하였으며, 정동화(1997)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일본아동에 비해 대인관계나 학업성취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한미현과 유안진(1995)은 부모와의 관계나 가정환경,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요구 또는 심리적 반응 등을 스트레스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학업수행 및 성취와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에 대한 태도, 학교시설 등과 관련하여 아동이 느끼는 짜증이나 불만,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불쾌감 등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한편, 한미현(1996)은 아동스트레스의 영역을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 환경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6가지 영역을 아동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란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개인의 모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고 상황을 재규정하거나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원인을 변형시키는데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말한다(백경애 1997).

대처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자아의 방어과정으로 보거나,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보았다(Lovallo & Pishikin 1980). 그러나 Lazarus와 Folkman (1984)등이 대처행동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처행동에 대한 관점이 성향적 시각에서 상황적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적 시각과 성향적 시각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이 제기되어 대처행동을 자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자기를 능력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면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대처하는데 효율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Harter 1990).

한편 아동의 대처행동은 청소년기, 성인기의 대처행동과 다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의존성, 즉 생존을 위하여 성인에 의존하게 되며(Compas 1987), 또한 아동의 생물학적, 심리적 준비도와 지적발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윤유경 1995). Ryan-Wenger(1992)는 아동의 대처행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Lazarus와 Folkman(1984)의 대처행동 정의에 바탕을 두고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행해진 16편의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대처행동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 활동, 행동적 회피, 행동적 기분전환, 인지적 회피, 인지적 방심, 인지적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조화, 감정표현, 인내, 정보추구, 고립활동, 자가통제활동, 사회적지지, 영적지지, 스트레스요인 수정의 1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민하영과 유안진(1999)은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 척도개발에서 아동의 대처행동을 적극적,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사회적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5가지 범주를 대처행동의 하위 범주로 개념화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본 연구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본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관련 변인중 아동이 성별·학년에 따라 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영태(1997)는 스트레스 지각정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며 남아 중에서도 독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이종순(1999)은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최애숙(1998)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4학년은 고학년인 6학년 보다 가정환경과 친구와 같은 요인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6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 보다 부모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우희정(1997)은 학년별로 1, 2, 3 저학년은 학업관련요인,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할 때, 교사로부터 꾸중 받을 때 등의 순서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4, 5, 6 고학년은 친구로부터 놀림이나 망신을 당할 때, 학업관련요인, 교사의 간섭, 교사의 무시나 편애, 학교폭력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문금순(1993)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73.3%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이 안정감이 없는 증세와 행동, 학교 도피증, 학습된 무기력감 등의 부적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희진(1990)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개인생활에 고민이 많고, 학

교생활, 가정생활 순으로 고민이 많으며, 여자가 동일수준 더 고민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임미향(1992)은 성별과 학년외에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학업성적을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 보다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김주연과 김정순(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Compas와 그의 동료들(1988)은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 지향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성차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의 도움과 종교적 도움을 구하는 정서 지향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정문자와 정현숙(1994)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방어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현정 1997)가 있는 반면에, 정영숙과 정승희(1996)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진아(2000)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고 윤유경(1995)의 연구 결과에서는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정미(1996)의 연구에 따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적극적 문제해결 대처행동을 덜 사용하고, 박진아(2000)의 연구에서도 4학년 아동에 비해 6학년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지면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주(199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4, 5학년 아동보다 긍정적 재평가, 기분전환적 행동 등의 적극적 문제해결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대처행동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요인의 분류도 달랐으며 결과도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학업·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는 문제지향적 행동을, 대인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것은 정서지향적 대처행동을 사용한다는(이소는 1990) 연구결과도 있으며, 웃어른에게 꾸중들을 때, 형제와 싸웠을 때, 친구가 놀릴 때, 시험성적을 못 받을 때의 요인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바꾸려 하는 대처행동(1차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가고 싶지 않은 학원에 가야할 때인 경우는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려는 대처행동(2차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도 있다(윤유경 1995).

신은영(1998)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대인관계나 통제강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아동들은 회피, 기분전환, 지지추구 등 다양한 대처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회피적 대처를, 가정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지지추구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희(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가정으로부터의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낮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으면 모든 것을 신비나 우연에 내맡기는 신비적 대처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친구로부터의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수동적이면서 신비적으로 대처하고, 학업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을수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학교요인의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수동적, 신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요인의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신비적 대처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86명이다. 이들은 도시는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Urban(N=143)		Rural(N=143)	
	N	(%)	N	(%)
Gender	male	72	73	(51.0)
	female	71	70	(49.0)
	total	143	143	(100)
Grade	4th	48	47	(32.9)
	5th	47	47	(32.9)
	6th	48	49	(34.3)
	total	143	143	(100)
School attainment	high	36	35	(24.5)
	middle	72	70	(49.0)
	low	35	38	(26.6)
	total	143	143	(100)

농촌은 경기도 내의 읍,면단위 초등학교 에서 표집되었다. 본래 3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이중 미회수 된 것,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286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 기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1) 아동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한미현(1996)이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 6개 영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각영역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영역 스트레스는 ‘엄마나 아빠가 내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가정환경 영역은 ‘우리가족이 그다지 화목하지 못해서’, 친구영역은 ‘친구들과 잘어울리지 못해서’, 학업영역은 ‘해야할 공부가 너무 많아서’, 교사학교영역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주변환경영역은 ‘학교나 집주위가 시끄러워

서’ 등이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는 $\alpha = .78$ 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민하영과 유안진(1999)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0)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당 5문항씩 모두 20문항으로 이루어진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74$ 로 나타났다.

기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지각정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총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일부의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인천과 경기도 내의 4개 초등

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각 담임교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4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 누락된 문항이 있는 질문지,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286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 ANOVA를 실시했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r을 구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 영역의 스트레스는 농촌지역 아동이 더 높았고, 학업영역과 교사학교영역의 스트레스는 도시지역 아동이 더 높았다. 주변 환경 영역의 스트레스는 농촌지역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아동은 적극적 대처 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고, 농촌지역 아동은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다.

2.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1)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차이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영역 스트레스의 경우 도시의 아동은 성별에 따라서는

Table 2. Difference in stress and coping behavior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

		Urban		Rural		t
		M	SD	M	SD	
Stress	parent domain	13.31	4.32	12.97	4.24	.47
	home environment domain	9.59	4.01	11.36	4.11	3.76*
	friends domain	10.92	3.96	10.76	4.02	.36
	school achievement domain	14.08	4.21	10.02	3.86	7.04**
	teacher and school domain	10.11	4.04	7.63	3.72	6.97**
	surroundings domain	10.02	3.87	12.38	4.21	3.87*
	total stress	68.03	16.76	65.12	14.93	1.23
Coping behavior	active	13.62	3.64	11.32	3.27	5.42**
	passive/avoidant	10.04	3.16	12.74	3.92	3.23*
	aggressive	11.27	3.72	9.53	3.17	3.21*
	social support seeking	9.52	3.13	9.37	3.02	.72

*p< .05 **p< .01

Table 3. Difference in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related variables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

Variables	Urban			Rural				
	M	t/F	Duncan	M	t/F	Duncan		
Parent domain	Gender	male female	13.34 12.99	.31			11.99 13.96	3.96*
	Grade	4th 5th 6th	11.71 13.30 14.92	4.23*	A AB B		12.95 12.96 12.99	.46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11.37 13.32 15.29	7.86*	A B C		12.94 12.97 13.01	.86
Home environment domain	Gender	male female	9.57 9.61	.27			12.87 9.89	3.96*
	Grade	4th 5th 6th	8.57 8.92 11.26	3.77*	A A B		9.91 11.35 12.72	3.26* A AB B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9.55 9.59 9.62	.29			11.34 11.35 11.37	.15
Friends domain	Gender	male female	10.95 10.89	.61			10.78 10.75	.24
	Grade	4th 5th 6th	10.90 10.92 10.94	.47			10.72 10.76 10.80	.96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12.47 10.91 9.16	4.11	A AB B		10.76 10.78 10.75	.31
School achievement domain	Gender	male female	14.09 14.07	.52			12.04 8.87	5.23*
	Grade	4th 5th 6th	12.11 14.06 16.04	6.92**	A B C		9.98 10.03 10.07	.91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11.89 14.01 16.37	9.21**	A B C		9.14 10.02 12.18	3.27* A AB B
Teacher and school domain	Gender	male female	10.13 10.98	.62			7.64 7.62	.37
	Grade	4th 5th 6th	9.17 9.21 12.32	4.21*	A A B		6.57 7.63 8.71	3.91* A AB B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9.02 10.11 11.24	3.54*	A AB B		7.62 7.65 7.67	.81
Surroundings domain	Gender	male female	9.01 11.12	3.62*			14.36 10.23	7.87**
	Grade	4th 5th 6th	10.04 10.02 10.00	.62			12.40 12.38 12.36	.73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10.01 10.03 10.02	.41			12.34 12.39 12.41	.75
Total stress	Gender	male female	67.09 69.66	1.15			69.68 61.32	7.24*
	Grade	4th 5th 6th	62.50 66.43 75.48	9.32**	A AB B		62.53 65.11 67.65	1.38
	School attainment	high middle low	64.31 67.97 71.70	7.62**	A AB B		64.14 65.16 67.39	.87

*p< .05 **p< .01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그리고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하인 아동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중, 상의 순서를 나타내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영역의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를 나타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부모영역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가정환경 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의 경우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6학년 아동이 4학년과 5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농촌의 경우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가정환경 영역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역시 도시와 같이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도시, 농촌 모두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도시만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친구영역의 스트레스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의 경우는 학년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농촌의 경우는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학업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의 경우는 학년과 학업성적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6학년 아동이 4학년과 5학년 아동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보다 교사학교 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농촌의 경우는 학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나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주변환경영역 스트레스는 도시, 농촌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냈는데 도시는 여아가, 농촌은 남아가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도시는 학년과 학업성적

에 따라 차를 나타내, 6학년 아동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농촌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도시의 경우는 주로 학년과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학년이 높은 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았고, 또한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2)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 아동의 대처행동차이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도시지역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업성적이 상이나 중인 아동이 하인 아동보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도시의 경우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4, 5학년보다 6학년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고, 농촌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그리고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도시, 농촌 모두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도시, 농촌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고,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도시는 성적이 상과 중인 아동이 하인 아동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했고, 농촌은 상인 아동이 하인 아동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해, 학업 성적이 낮은 아동이 도시, 농촌 모두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Table 4. Difference in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child-related variables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

Variables	Urban			Rural				
	M	t/F	Duncan	M	t/F	Duncan		
Active coping behavior	Gender	male	13.64	.47	12.56	3.62*		
		female	13.60		10.11			
	Grade	4th	13.59	.64	11.32	.26		
		5th	13.62		11.31			
		6th	13.65		11.33			
	School attainment	high	14.64	3.36*	B	11.36	.94	
middle		14.62	B		11.31			
low		12.59	A		11.28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Gender	male	10.01	.58	11.62	3.78*		
		female	10.07		13.89			
	Grade	4th	9.11	4.27**	A	11.62	A	
		5th	9.02		A	12.74	3.94*	AB
		6th	12.06		B	13.87		B
	School attainment	high	10.01	.62		12.58	1.02	
middle		10.03	12.76					
low		10.06	12.94					
Aggressive coping behavior	Gender	male	12.46	4.36**	10.61	3.72*		
		female	9.84		8.47			
	Grade	4th	11.28	.41	9.59	.92		
		5th	11.27		9.53			
		6th	11.26		9.47			
	School attainment	high	10.14	4.21**	A	8.62	A	
middle		10.26	A		9.53	3.23*	AB	
low		13.32	B		10.47		B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	Gender	male	9.49	.71	9.32	1.01		
		female	9.55		9.41			
	Grade	4th	9.48	.82	9.33	.84		
		5th	9.52		9.37			
		6th	9.56		9.41			
	School attainment	high	9.58	1.02	9.42	.96		
middle		9.51	9.36					
low		9.46	9.31					

*p< .05 **p< .01

있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도시, 농촌 모두 성별,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도시의 경우는 남아가 더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6학년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학업성적이 상인 아동이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하인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남아가 적극적, 공격적 대처 행동을 여아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6학년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성적이 하인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3.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차이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 두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 도시의 경우 스트레스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대처행동은 공격적 대처 행동이며, 그 다음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도시아동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수록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교사학교 영역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농촌의 경우는 도시와 달리 스트레스 총점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대처행동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나타나 농촌 아동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록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순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주변환경 영역 스트레스는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

외에도 적극적 대처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4.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차이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와 농촌별로 스트레스 총점과 관련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의 값이 .70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아동의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이었고, 그 다음은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촌은 성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었고 그 다음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순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도시아동의 경우는 학업성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농촌의 경우는 성별이 스트레스 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에서도 도시아동의 경우는 공격적 대

Table 5. Difference i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tress and coping behavior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

	Urban				Rural			
	active	passive/avoidant	aggressive	social support seeking	active	passive/avoidant	aggressive	social support seeking
parent	.04	.19**	.24**	.08	.02	.22**	.12*	.07
home environment	-.06	.17**	.23**	.09	.06	.20**	.14*	.05
friends	.07	.16**	.26**	.15**	.04	.18**	.23**	.11*
school achievement	.08	.33**	.28**	.09	.07	.30**	.25**	.08
teacher and school	.13*	.15**	.37**	.08	.05	.27**	.21**	.06
surroundings	.04	.26**	.34**	.12*	.11*	.23**	.12*	.04
total stress	.06	.33**	.41**	.17**	.05	.39**	.17**	.09

*p< .05 **p< .01

Table 6. Difference in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stress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

	Urban		Rural	
	b	β	b	β
Gender	.526	.097	.136	.371**
Grade	-.302	.062	-.217	-.043
School attainment	.216	-.413**	-.072	-.103
Active coping behavior	.013	.075	.204	.062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327	.265**	.396	.296**
Aggressive coping behavior	.114	.362**	-.197	.215**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	.042	.028	-.098	-.073
R ²	.392		.314	
F	11.372**		10.875**	

**p< .01

처행동이, 농촌아동의 경우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관련 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도시는 39%정도, 농촌은 31%정도를 나타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보고,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이해하고, 지역별로 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아동은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가 높았고, 농촌아동은 가정환경영역, 주변환경영역 스트레스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 아동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고 농촌지역 아동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다.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시아동은 학업이나 교사 등 학교에 관계되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는 김순자와 황혜정(2001)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촌아동은 가정이나 주변 등 환경에 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대처방법도 도시는 농촌보다 더 적극적,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관련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부모영역 스트레스의 경우 도시는 6학년 아동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더 높은 부모영역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농촌은 여아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의 경우는 6학년이, 농촌은 6학년이, 그리고 남아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도시는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농촌의 경우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의 경우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농촌의 경우는 남아가,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교사학교 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의 경우 6학년이 그리고 학업성적

이 낮은 아동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농촌은 6학년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주변환경영역 스트레스는 도시, 농촌 모두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를 나타냈는데 도시는 여아가, 농촌은 남아가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총점으로 살펴보면 도시는 6학년과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농촌은 남아가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도시의 경우는 주로 학년과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학년이 높은 6학년아동과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6학년 아동이 부모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우희정(1997)의 연구와 성적이 낮은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받는다는 임미향(199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는데 이는 김영태(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관련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는 도시는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이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농촌은 남아가 많이 사용했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도시의 경우는 6학년 아동이, 농촌은 역시 6학년 아동과 여아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했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도시는 남아와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농촌도 역시 남아와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도시, 농촌 모두 관련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년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을 덜 사용하고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정미(1996), 박진아(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학년이 높아지면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 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도시의 경우 스트레스 총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대처행동은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촌

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아동은 스트레스 정도와 공격적 대처행동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고, 농촌의 아동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도시의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이었고 그 다음은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는 성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또한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하위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고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도시와 농촌으로 선정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도시와 농촌은 대표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각각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처행동을 조사했으므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 지역특성에 따라 아동이 가정 및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도와 줄수 있는 지도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룬 아동관련 변인이외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 대상의 연령을 확대시켜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스트

레스는 각각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때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들 모두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부족하므로,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아동은 스트레스 정도가 크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농촌아동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순자·황혜정(2001) 초등학생의 행동특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4(2), 303-317.
 김주연·김정순(1999)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52-261.
 김영교(1995) 부모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태(1997)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금순(1993)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하영·유안진(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6.
 민하영·유안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황간 일관성 및 내외 통제 소재에 따른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26.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박진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희(1997)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경험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연구. 건국대 교육논총 29(12), 103-120.
 백경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의열(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은영(1998) 한국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희정(1997)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과학 제3집, 115-125.
 윤유경(1995)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양식의 발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순(1999)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에 관한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희진(1990)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미향(1992)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수준 실태에 관한 분석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영애(1997) 아동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전 아동 가정의 가정환경 자극분석-도시와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4), 15-30.
 정동화(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 고려대 교육문제연구 9, 205-223.
 정문자·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과 대처전략분석. 학술진흥재단 보고서.
 정영숙·정승희(1996)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위 측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2), 185-195.
 정원주(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천민필(199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애숙(1998) 초등학교 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교육 발전논집 20(1), 157-178.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상근(1993) 국민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nd ER, Weisz J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Cohen F, Lazarus RS(1983) Coping and adaptation on health and illness. In D. Meadham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New York : Basic Books Inc. 608-635.
 Compas BE(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203.
- Compas BE, Malcarne VL, Fondscaro K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Elkind D(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Addison-Wealey Publishing Co.
- Ebata AT, Moos R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Harter S(1990)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4, New York : John Wiley.
- Lazarus R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ovullo WR, Pishikin V(1980) Performance of type A(coronary prone)men during and after exposure to uncontrolable noise and task failur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963-961.
- Pilkington LR, White J, Matheny KB(1997) Perceived coping resources and psychological birth order in school aged children. *J.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53(1), 42-57.
- Ryan-Wenger NM(1992) A taxa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2, 256-263.